

보험사, 하반기 신입 채용문 ‘활짝’... 디지털 전환 속도

디지털 사업 확대·인력 충원 집중
삼성생명, 디지털금융직 등 채용
DB손해보험, 총 6개 분야 모집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이 활발하다. 삼성생명·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과 DB손보 등이 신입 채용에 나서면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7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모집 분야는 ▲영업관리직 ▲디지털금융직 ▲자산운용직 등 총 3개다. 지원서 접수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이후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영업관리(지점운영, 교육, 조직관리, 마케팅 등) ▲손해

현대해상
메타버스 채용 상담회 개최

2021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도입
채용 정보, 합격 노하우 등
실시간 상담 가능



H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메타버스 채용 상담회를 개최한다. /현대해상

사정(자동차 대인보상) 2개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삼성생명과는 채용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중 최종 입사할 계획이다.

현대해상도 지난 13일부터 2021년 하반기 4급(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현대해상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경영지원 ▲보험계리·통계 ▲자산운용 ▲디지털·IT ▲점포영업관리 ▲자동차손해사정6개 분야다. ▲서류전형 ▲1차면접(AI 역량검사) ▲최종면접의 선발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에 입사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개더타운(Gather Town) 플랫폼을 활용한 메타버스 채용 상

담회도 실시한다.

이번 메타버스 채용 상담회는 대면 방식의 채용 상담이 어려워진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대해상 채용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회에서는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알려주는 현대해상 채용 정보와 합격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 직원들의 직무 이야기 및 회사 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도 지원한다.

DB손보도 내달 7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관리 ▲보상관리 ▲U/W ▲상품업무 ▲자산운용 ▲경영지원 총 6개 분야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필기전형(온라인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1차 실무, 2차 임원) ▲채용검진 단계를 거친다.

특히 DB손보는 올해 상반기부터 AI 면접을 도입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대폭 줄여왔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맞춰 인재채용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확대와 인력 충원에 많은 회사들이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하반기 공개 채용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B-신한금융, 그린에너지 펀드 공동 출자

800억 규모... 그린에너지 시장 진출
향후 신재생 에너지 투자 범위 확대

KB금융그룹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투자 플랫폼을 구축했다.

KB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에 총 800억원 규모로 공동 출자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는 지난 4월 KB국민은행이 신한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스포라트코리아와 맺은 그린에너지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조성한 투자 펀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500만 유로, KB손해보험(KB자산운용 LDI본부)과 신한라이프가 각각 200억원씩 총 80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했고 스포라트코리아자산운용이 유로화 펀

드, 신한자산운용이 원화 펀드를 각각 맡아 운용할 계획이다.

펀드의 첫 번째 투자로 선정된 ‘구바버켓 프로젝트’는 스웨덴에 74.4MW 규모 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가 지분의 55%를 투자하고 나머지 45%는 한국중부발전이 출자한다. 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구바버켓 프로젝트의 스웨덴 현지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장(LC)을 발급했으며 향후 대출 등 금융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구바버켓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을 스웨덴 현지에 파견해 건설 공정과 운영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에 앞서 하반기 운전 개시를 앞두고 있는 스웨덴의 254.2MW 규모 풍력발전소 구축 프로젝

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향후 글로벌 그린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통해 공동 투자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발전 공기업에 글로벌 그린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반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KB금융은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KB 그린웨이브(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소원 기자 think@



한국은행, 추석 앞두고 명절 자금 대출
한국은행, 추석 앞두고 명절 자금 대출

추석 명절을 앞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추석 명절자금을 발송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하나금융, ‘0세 영아 전용’ 다빛 하나어린이집 개원

교사 1명, 0세아 2명·1세아 3명 전담
경력 단절 여성·맞벌이 육아 문제 해소

하나금융그룹이 ‘0세 영아 전용’ 대전시 다빛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대전시 다빛하나어린이집은 경력 단절 여성과 맞벌이 가구 육아 문제 해소를 위해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아를 위한 보육 인력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영아 전문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졌다.

교사 1명이 만 0세아 3명과 만 1세아 5명을 보육하는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개원식에 참석한 한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두번째)과 허태정 대전시장(왼쪽 네번째)이 참석내외빈과 함께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0세 영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1명이 0세아 2명, 1세아는 3명을 전담한다.

한영주 부회장은 16일 “이번에 특별히 일과 보육 병행이 쉽지 않은 취업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0세 영아 전용’ 어린이집 건립에 기여하게 되어 더

욱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이 곳이 영아들과 일하는 부모 모두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 전체가 안정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 청소년 대상 ‘우리가 그린 놀이학교’

환경문제 비대면 교육

우리금융그룹은 저탄소·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인 ‘우리가 그린(GREEN) 놀이학교’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우리가 GREEN 놀이학교’는 환경교육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의 반응을 보여주는 체험 연극 및 내가 먹는 음식 속 탄소발자국을 찾아보는 친환경 요리 교실 등 직접 참여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환경 NGO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과정은 모두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한 지난 8월 초등학교·중학교·지역 아동센터·청소년문화센터 등의 교육 대상 기관을 선정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약 500명의 청소년에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환경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